

사랑의 보일러 교실

린나이코리아 도움으로 폐교위기에서 학생

2005. 2. 22 (화) 14:00 / 성 동 구



사랑의 보일러교실(이명수)가 당초 교실로 사용하던 똑섬 경마장이 지난해 매각되면서 폐교위기에 몰렸었는데, 린나이코리아(www.rinnai.co.kr 대표 강성모)의 도움으로 폐교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린나이코리아(주)는 김종택 마케팅 팀장은 “사재를 털어 실직 가장에게 보일러 기술을 전수해온 이영수 명장의 뜻을 살리기 위해 사랑의 보일러교실을 지원하기로 했다” 며, 1차적으로 임대보증금 3천만원과 실험용 보일러 10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인 ‘정리(正理) 경영’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린나이 직원들도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모금운동을 벌여 6백 60만원을 모아 지원했으며, 사랑의 보일러교실 졸업생 400여명도 모금활동에 나섰다.

이 명장은 “똑섬 경마장이 철거됨에 따라 교육장을 비워줄 수 밖에 없었다. 방송 등 여러곳에 호소했었지만 결국 또다시 린나이의 도움을 받게 됐다. 기업도 어려운데도 우리 교실에 수년동안 변함없는 지원해준 린나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현재 공장 창고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확장을 통해 15기생부터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보일러설비협회와도 상생의 협력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 머리를 맞대로 활로를 찾아보자”고 했다.

린나이 코리아는 사랑의 보일러 교실에 이명장의 순수하고 투명한 봉사활동에 음으로 양으로 적극지원하고 있다.

B/N